

‘복잡성(Complexity) 이론’에 의한 한국 전통정원의 해석

- 한국의 명원 소쇄원을 중심으로 -

장일영 · 신상섭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Garden in the View of Complexity Theory - Focusing on Soswaewon Garden -

Jang, Il-Young · Shin, Sang-Sup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new analysis on Soswaewon Garden(瀟灑園) where is Korea's traditional garden, focusing on which the tendency of its change is a relational-formation tool similar to the Eastern Mode of Thought, with paying attention to conversion as the new view of world. Accordingly, the aim is to reanalyze by connecting with Soswaewon Garden based on the theory of complexity, which tries to look at the whole through relationship rather than characteristics in individual components.

Given summarizing findings, those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omplexity shown in space and open system of physical dimension was characterized by ‘event(situation)’, ‘non-determination’ and ‘homogeneous relationships between part and whole’, and a variety of techniques introduced the nature positively.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cases of topographic usage, since the Soswaewon Garden selected its construction site proactively and was a product from architectural works in compliance with a given flow of natural topography. This has a nature of open text in the situation of emergent behaviors. Second, it was found that complexity shown in experiences and open system on the invisible dimension was characterized primarily by ‘event(situation)’ and ‘relationships of interactive response between actors and environment’, and various techniques appeared as a space for interactive combination of nature and daily experiences. This is typical of bilateral harmony based on interactions between subject and object, and between mankind and nature, and becomes also a space to accommodate temporary emergent behaviors in our life. Third, the compositional elements are reconstituted as space of organic property with dismantling steady relations. Especially, ‘Soswaewon Garden’s 48 poems(瀟灑園四十八詠)’ will be the origin of the emotionally spatial experience to the current performers. Ultimately, the performer in the space of Soswaewon Garden simultaneously becomes a creator of space, and will generate new space with intertextuality with environment. Therefore, Soswaewon Garden becomes a place of binding me and the other together while maintaining mutual relationship based on organic thinking between a human being and nature and between the whole and a part.

Key Words: Complexity, Soswaewon Garden, Self-organization, Emergent Behaviour, Non-Determination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학문후속세대양성 박사후국내연수)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F00042).”

* Corresponding Author : Jang, Il-Young, Dept. of Landscap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Jeonbuk 565-701, Korea.
Phone : +82-63-290-1490, E-mail : jang1ring@hanmail.ne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새로운 세계관으로서의 전환에 대해 주목하고 그 변화의 경향이 동양적 사유 방식과 유사한 관계형성 도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한국 전통정원인 소쇄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별적 구성요소들의 특성보다는 관계를 통해 전체를 바라보려는 복잡성 이론에 기초하여 소쇄원과 연결, 재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차원의 공간과 열린 시스템에 나타난 복잡성의 특성은 ‘사건(상황)’, ‘비결정성’, ‘부분과 전체의 상동적 관계’ 등 세 가지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기법들은 자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형의 이용이 많은 이유는 소쇄원의 경우 부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였고, 그 주어진 자연지세의 흐름에 순응하며 건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것은 창발적 상황에 열린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둘째, 비가시적 차원으로서의 경험과 열린 시스템에 나타난 복잡성의 특성은 ‘사건(상황)’,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가 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기법들은 자연과 일상의 경험이 결합되어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양방향의 어울림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삶의 일시적 행태를 담아내는 창발적 공간이 된다.

셋째, 자기조직화를 통한 감성언어와 체험에서의 구성요소들은 고정적 관계들을 해체하고 유기성을 가진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소쇄원 48영’은 현재의 행위자들에게 소쇄원의 감성적 공간체험을 위한 원천이 되어준다. 결국 소쇄원 공간에서의 행위자는 동시에 공간의 창출자가 되며, 환경과 상호텍스트 된 새로운 공간을 생성한다. 그러므로 소쇄원은 인간과 자연,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 사고를 바탕으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와 타자를 결속시켜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주제어 : 복잡성, 소쇄원, 자기조직화, 창발현상, 비결정성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세계는 물심이원론과 기계론적 사고방식에 기반을 둔 고전과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잡성(complexity)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¹⁾. 이것은 근대세계를 지배해 온 환원주의(reductionism), 합리성(rationality), 기계적 세계관에서 전일론적(holistic)²⁾ 생태론적(ecological)³⁾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뜻한다⁴⁾. 따라서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세계를 상보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은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통합된 관점⁵⁾으로 이끌 수 있는 사고체계로서 환경과 파괴와 경관훼손에 대한 대안논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신상섭, 2007). 이러한 새로운 도식의 탄생배경에는 물질계와 인간을 포함한 생물계가 통합되는 것이며 즉,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특권화하지 않고 모든 자연현상과 상호 연결하여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실체론적인 관점을 포기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론의 관점에서 물질과 정신, 생물체와 환경, 주관과 객관을 재개념해야 한다(심광현, 1999)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세계관으로서의 전환에 대해 주목하고, 그 변화의 경향이 동양적 사유 방식과 유사한 관계형성 도

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한국 전통정원인 소쇄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복잡성 이론에서 도출한 자기조직화, 창발현상이 소쇄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그 가치를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다⁶⁾.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개별적 구성요소들의 특성보다는 관계를 통해 전체를 바라보려는 복잡성 이론에 기초하여 소쇄원이 갖는 공간의 잠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 2장에서는 복잡성의 주요 개념과 도시공간에서 전개된 복잡성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공간적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사고의 구성을 찾아내어 재구성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복잡성 이론이 한국전통정원에 적용 가능한 구조와 분석틀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한국전통정원인 소쇄원에 내재되어 있는 경관 특성을 ‘소쇄원도’에 근거로 한 가시적인 경물의 공간구성, ‘소쇄원 48영’에 근거로 한 비가시적 차원으로서의 관계생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복잡성 이론에서 도출한 자기조직화, 창발현상의 내적특성들을 토대로 소쇄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분석함으로써 소쇄원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공간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자 함이며, 현대의 문화적 흐름에 맞게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여 소쇄원의 현대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II. 복잡성 이론의 주요개념 및 구조

1. 복잡성의 개념 및 특징

복잡성(複雜性)은 경관구성요소의 다양함으로 정의(임승빈, 1991)할 수 있다. 복잡한 시스템(complex system)⁷⁾으로서의 복잡성은 다양하고 많은 수의 구성요소들이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특성과는 다른 새로운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지만, 나름대로의 질서를 보여주는 시스템(강성남, 2009)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성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인 구성요소의 성질에 있지 않고 시스템 속에 있는 개개의 요소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Mark C. Taylor, 2001)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복잡성 이론에 의한 역동적 상호작용은 개개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관찰하였을 경우의 특성과 다른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창발(emergence)’ 또는 ‘창발현상(emergent behaviour)’이라(윤영수와 채승병, 2005) 하며, 창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성요소들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생성되는 현상을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라 한다(표 2 참조).

1)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19세기 말 열역학이론과 최근 카오스 이론의 창시자인 일리야 프리고진(Ilya Prigogine)의 비평형 통계역학에서 자기조직화 개념에 의해 시간의 대칭성 붕괴와 비가역성이 입증되고 있

다. 이들의 연구는 단순한 물리과학 수준에서 발견되는 자기조직화의 기본 원리들을 보다 다양하게 접근하려는 논의들 즉, 생태학적, 사회문화적, 최근에는 도시의 성장과 진화 등 인간 생활체계 내부의 현상모델 설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최창현과 박찬홍, 2007). 자기조직화의 주된 특징은 부분의 요소적 단위들과 이것들의 집합이 전체의 장(場)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특히 ‘부분들의 합이 질적 변화를 통해서 전체를 산출하며’, ‘전체가 부분들의 가능성과 동일시되는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조직화는 수직적 통제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주변 환경과 상호 연결되어 과정을 중요시 한다.

2) 창발현상(Emergent Behaviour)

창발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정의⁸⁾할 수 있는 자연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독일의 하켄(H. Haken)은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거시적인 창발적 질서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구성요소들이 특정한 조건에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시너지 효과라고 인식하였다(조현일, 2009). 즉, 창발현상이란 이전 단계에서는 그 시스템의 개개의 성분이나 기능적 특성으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이나 특질의 발현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게스탈트(gestalt)이론을 들 수 있는데, 게스탈트는 형태 혹은 모습을 지닌 조직화(organization)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법칙이며, 조직은 부분들의 단순한 조합 혹은 배치 이상의 의미(임승빈, 1991)가 있음을 말한다.

표 1. 단순계와 복잡계의 비교

단순성 과학 단순계(simple system)	복잡성 과학 복잡계(complex system)
분석	종합
기계성	유기체성
선형성	비선형성
결정성	비결정성
평형	비평형
단순성	복잡성
대상	맥락, 과정
시간가역적	시간비가역적
환원론	전일론

자료: 김주미, 2000. 필자 제작

2. 공간설계에 나타난 복잡성 이론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관계형성 도구로서의 복잡성의 원리를 자기조직화와 창발현상으로 조형적 공간에 투영해 보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시각의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인공적 대상물과 자연물,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성으로 내 외부세계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는 단일구조의 열린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둘째,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짐으로서 체험자가 공간을 경험함에 있어서 설계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경험을 자기조직하는 능동적 적응의 주체(유명희, 2005)로 재편된다. 셋째, 공간의 복잡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표 2. 복잡성 이론의 특성

복잡성	주내용	특징
자기조직화	무질서한 상태에서 혼돈에 빠지지 않고 환경변화에 따라 구성요소를 재조직하며,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현상	경계가 불분명한 열린 시스템, 전체와 부분간의 상호 되먹임구조
창발현상	전체의 구성부분에 의해 이루어진, 미리 존재하고 있던 부분들의 네트워크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남	구성요소를 함께 모아 놓은 전체구조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특성이나 행동(이인식, 2008), 상전이(相轉移)

형태의 불륨이 아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상황)으로서의 비결정성(indetermination)을 설계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써 유기적 공간구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들은 부분의 총합이 아닌, 부분들의 특성 및 상호관계를 기초로 한 열린 공간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간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수용되고 대응하며 변화하고 있는가? 도시공간은 근대적 사고방식과 고전과학의 영향으로 개별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공간을 추구하였으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다(김성우와 이승용, 2003). 즉, 이는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공간만을 창출할 뿐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체감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창출함에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박영욱, 2009).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20세기 후반, 특히 90년대 이후 서구 건축디자인은 새로운 자연과학과 철학, 그리고 디지털미디어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단순계적 사고에서 복잡계적 사고를 통해 선형에서 비선형(non-linear)이라는 새로운 조형적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주미, 2001).

표 3은 현대 도시공간설계에서 복잡성의 양상에 대한 사례들이다. 사례를 통해 말하고자 함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의 요소로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을 연결하는 관계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인간과 공간이 쌍방향으로 작용하는 ‘반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 전통정원인 소쇄원에서 복잡하지만 나름대로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것은 구성요소들의 자체 특성이라기보다는 구성요소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연결구조에 기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3. 한국전통정원에의 적용 가능성




우리의 전통경관에 눈을 돌려 보자. 내정(內庭)과 외정(外庭), 내원(內園)과 외원(外園), 내원(內苑)과 외원(外苑) 등 지속가능한 생태적 조경공간들이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를 이루어 하나의 커다란 자연정원이 구축된다(신상섭, 2007). 또한 공간의 중첩으로 내·외부 공간 사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대청마루나 뒷마루 등은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모호한 공간이 된다(임석재, 1999). 전통정원의 마당 공간이나 뒷마당의 용도와 기능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비결정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틈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다층구조로 읽어야 할 것이다(길성호, 2003). 이는 명확하기 보다는 비결정적 틈을 남겨두기 때문에 체험자를 위한 정원(서자유, 2007)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쇄원의 모습을 담은 소쇄원 48영에서의 경관체험은 체험하는 사람이 경관에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강영조, 2001), 이것은 형태적인 측면보다는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관계성에 주목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그림 1 참조).



그림 1. 복잡성(complexity) 이론과 전통적 공간개념과의 상관성분석

표 3. 분석 사례별 복잡성의 특성과의 관계

사례	복잡성	
	자기조직화	창발현상
	*경계가 불분명한 열린 시스템, 전체와 부분간의 상호의존적 구조	*전체와 부분간의 피드백,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통해 전체구조에서 새로운 형태, 행동이 출현
a: Yokohama Port Terminal	 다양한 경로를 통한 프로그램의 연결, 유연성에 의한 이벤트의 연계	내부와 외부, 기존의 지면과 인공적인 지면, 수직적인 구분까지 모호하게 하고 서로 섞여 있으면서도 각각의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 새로운 장소를 제공
b: Duisburg Noth Landscape Park	 시간과 공간,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여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개방되고 혼성되는 설계경향	옛 건물과 형상이미지에 담긴 역사의 시간과 흔적을 상기시키는 수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
c: Byxbee Park	 자연의 형성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결과물보다 역사와 장소가 갖는 자연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 중심성	그림처럼 이름다운 미적 대상으로 자연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용자 참여를 통해 작품의 완성도에 도달하게 함

자료: a: 필자 촬영, b: Peter Reed, 2005, c: Ashton, 2002.

소쇄원은 자연과 정원의 경계가 모호하다. 자연이 정원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원인지 명확하지 않다(권영걸, 2001). 가장 큰 이유는 장소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원의 구성요소들은 그 요소들이 내포하는 시적 맥락에 의해 서로 병치(併置)되며 시적 텍스트를 형성하고 정원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곧 그 장소와 그 시간이 가진 내밀한 현상의 표현을 통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체험자에 따라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비어있는 틀이고 살아있는 구조로 곧 비결정적 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발생적 요소들로서의 부분들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할 때,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조직화들, 전체는 잠재적으로 환경에 그려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쇄원을 ‘잠재적 환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시각의 일원적 분석만으로는 결코 파악되지 않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복잡성 이론의 내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⁹⁾.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들이 현대조경에 있어 전통성 적용이라는 명목 아래 외연적으로 재현됨이 아니라, 그 정신을 채용¹⁰⁾하고 새로운 정체성의 이론을 창조하여 조경이 그 환경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경작품에 대한 해석과 설계접근방법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물질(matter)보다 상황(situation)을, 오브제(object)보다 관계(relation)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는 경험과 느낌에 따른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적 맥락들이야말로 서구의 탈근대 사유와 과학을 우리 전통사유·문화와 마주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III. 분석의 틀

이상 복잡성 이론의 공간적 해석을 통해 도출된 관계형성 도구로서의 특징은 ‘경계가 불분명한 열린 시스템’과 ‘전체와 부분간의 피드백으로 새로운 질서 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복잡성의 특성을 지원하는 공간은 열린 시스템으로서 이른바 ‘관계적 사고’가 전제된다. 확정적인 결과가 아닌 비결정적

과정 자체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전제될 것이다. 첫째, 공간은 외부세계와 에너지를 끊임없이 교환하는 열린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둘째,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짐으로서 공간의 행위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감각적 경험을 자기조직화를 통해 능동적 적응의 주체로 재편된다. 셋째, 구성요소들은 고정적 관계들을 해체하고 유기적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복잡성 이론에 근거한 맥락적 특성으로 상동적 관계, 상호감응관계, 사건(상황), 비결정성으로 압축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복잡성의 특성들이 그 각각의 개념들과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복잡성 이론은 학제간의 융합과 조경·건축철학의 전환, 시공간 중심의 역동적 모델로써 변화를 예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은 현대 공간디자인 사례에서 그 상관성을 논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성이 보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별서정원(別墅庭園)인 소쇄원(瀟灑園)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IV. 소쇄원(瀟灑園)의 공간 이해

1. 별서 소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별서정원으로서 소쇄원은 16세기 전반에 건립되어 지금까지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그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가치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소쇄원은 양산보(梁山甫: 1503~1557)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당대 문인들과의 교류와 다양한 활동의 공간이었다.

1) 소쇄원도(瀟灑園圖)

1614~1672년 사이에 제작된 목판본 소쇄원도는 ‘소쇄원 48영’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다. 따라서 소쇄원도는 정원의 실제 평면도라기보다는 ‘소쇄원 48영’의 시적 분위기를 그림으로 풀어 본 일종의 도해(圖解)(박정욱, 2001)라고 할 수 있다. 소쇄원도는 현재 소쇄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각적 단서로서 행위자의 행동변화에 따른 공간구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의미가 크다.

표 4. 복잡성(complexity) 이론의 공간적 해석과 맥락적 특성

복잡성 이론	특징	공간적 해석	맥락적 특성
자기 조직화	경계가 불분명한 열린 시스템, 전체와 부분간의 상호피드백 구조	주변 상황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열린 시스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짐 자기조직하는 능동적 적응 주체로 재편	상동적 관계 상호감응관계
창발 현상	전체와 부분간의 피드백, 구성요소 특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구조에서 새로운 질서가 출현	전체와 부분이 상호작용하여 구성성분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 유기적 공간 이질적인 것과 결합함으로써 어떤 다른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	사건(상황) 비결정성

2) 소쇄원 48영의 의의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소쇄원 48영'은 소쇄원 주변경관과 그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중심으로 실제 가시적 영역과 보이지 않는 사상, 감정을 형상화한 총체적 예술텍스트라 할 수 있다. '소쇄원 48영'에는 날씨와 사계, 밤과 낮, 실경과 허경, 빛과 그늘, 시각과 청각, 정과 동, 자연과 인공 경물 등에 대한 노래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구성은 48개의 장면을 뽑아 무질서하게 나열한 것이 아닌 소쇄원 전체의 구조적 형상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하나의 경관에 질서와 조화를 꾀고 있다. 주로 그 내면에는 그의 사상과 도의(道義)가 함축되어 있어 당시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천득염, 1999). 이와 같이 '소쇄원 48영'은 각 영마다 요소별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소재로 하여 구체적인 소쇄원의 경관구성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 가시적 영역의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심리적 개입 등을 통해 비가시적 공간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쇄원을 해석하는데 있어 '소쇄원 48영'은 공간에서 드러나지 않은 비가시적 요소와 인간 행위요소를 투영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소쇄원의 경관 특성

소쇄원의 내원을 살펴보면, 1,400여 평의 대지에 6개의 많은 영역들이 있으며, 각각의 영역들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적이다. 어느 부분에서도 전체를 인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분 영역의 경관과 행위를 즐길 수 있다(김봉렬, 2006). 따라서 소쇄원의 관계생성으로서의 공간분석에 있어서는 소쇄원도를 근거로 한 가시적인 '경물'의 공간구성과 비가시적 차원으로서의 관계생성에 있어서는 '소쇄원 48영'을 분석의 근거로 그 속에 드러나 있는 '지각적 경험', '감각적 경험¹¹⁾'을 중심으로 소쇄원의 경관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차원으로서의 관계생성

소쇄원은 실제적 환경으로서 열림과 닫힘, 분할과 통합을 이루며 조화롭게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분석의 요소는 현존하는 실제적 구성요소로 한정하여 공간 특성을 분석한다. 장소를 중심으로 한 소쇄원의 경물요소를 물리적 차원으로서의 관계생성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담장 안의 내원영역을 분석 범위로 삼아, 실존하는 공간의 기본적 질서와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전체 공간 내에서의 부분들의 다양한 연결 관계를 분석한다. 구성은 제월당(霽月堂)과 광풍각(光風閣), 광풍각(光風閣)의 안과 밖, 소계곡 화계, 인공물길과 자연물길, 담장과 단, 투죽위교(透竹危橋)와 약각(略灼), 화계(花階)와 화오(花塢)의 요소에서 추출되어진다.

지형을 좇아 자연스러운 단차 변화를 보이는 제월당과 광풍각은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 아랫단에 위치한 광풍각은 내부에서 원림을 향하는 시선이 수평적이며, 바람이 이는 것 같이 역



그림 2. 광풍각과 제월당



그림 3. 광풍각 안과 밖

동적이다. 주인의 학문과 사색을 위한 정적인 공간으로서 상단에 있는 제월당은 항상 아래를 내려다 보도록 되어있다. 제월당은 가장 위쪽에 있어 항상 밝은 곳이라면, 광풍각은 손님을 맞아 시가와 주흥을 즐기는 유희의 동적인 장소이며, 그들이 드리워진 수평적 시각을 전체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서로 대립으로 제어한다는 느낌보다는 각각 처지를 지키며 전체와 어울리고 있다(그림 2 참조).

광풍각의 공간은 개방성을 갖는 비결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문은 들어 열개문으로 구성되어 소쇄원의 모든 자연적 요소를 3면을 통해 볼 수 있다. 안·밖, 좌·우, 전·후가 서로 매개하면서 주변의 자연과 건물이 일체가 된 경우이다. 광풍각 내부에 물리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한 사람이 개입하면 비로소 시각적인 자연의 둘러싸임이 인식되는 인식의 공간이 형성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공동체의 장소로서 또 다른 관계형성을 한다. 이와 같이 광풍각에서의 공간은 개체가 살아 있으면서 객체와 개체, 전체와 개체 사이에 양방향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수(水)의 부분인 소계곡과 산(山)의 부분인 화계(花階)는 서로 대조를 보이는데, 주로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소계곡은 굴곡과 자연미를 최대한 살려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화목이 심겨져 있는 화계는 평면과 인공미를 최대한 살려 구성했다(박정욱, 2001). 따라서 이곳은 계곡이 하향하고 화계가 상향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체가 결합하여 상호작용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오곡문(五曲門)의 아래를 튀워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담장은 담장대로, 물은 물대로 연속성을 유지하게 한다(권영걸, 2001). 또한 소쇄원의 물길은 인공적인 물길과 자연적인 물길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이 둘의 영역은 소쇄원의 공간을 분절시키지 않으면서도 독자적 영역을 확보한다. 즉, 자연적인 물길에 물리적 조작을 통해 경계가 소실되면서 자연과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물소리를 다양한 장소에서 들을 수 있으며, 인간의 마음이 하나로 합치되는 공간을 연출한다.

소쇄원의 영역을 수직적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석축이라면, 수평적인 구성요소는 담장이다. 담과 단에 의해서 소쇄원의 6개의 영역들은 구획되며, 동시에 연속된다. 소쇄원의 담장은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이루도록 설치되어 있지만, 폐쇄된 것이 아니라 양 끝이 개방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구조적인 요소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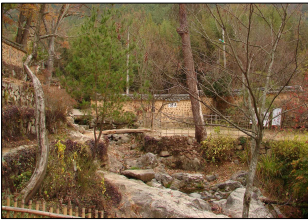


그림 4. 계곡과 화계



그림 5. 3면의 담장

물의 부속 요소가 아니라 독립된 요소이다(김봉렬, 2006). 때문에 담장은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를 경계 짓는 벽면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광풍각과 제월당 영역을 구획하는 요소로서 네 번 꺾인 담장은 안팎 사이의 구별이 불명확하다. 제월당에서 협문을 나가면 밖이 되지만, 3면의 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은 그 자체로 내부적이다(그림 5 참조). 그러나 광풍각 쪽으로 담장을 쫓아가면 다시 외부임을 느끼게 된다(김봉렬, 2006).

또한 계곡의 상하에 위치한 다리인 투족위교와 약작은 직류와 곡류에 적합한 다리 형태로 서로 대조를 통해 조화를 보이고 있다. 화계와 화오는 계단과 둔덕으로서 모두 화목이 심겨졌으며, 상하를 수직으로 통합 연결시키고 있다.

2) 비가시적 차원으로서의 관계생성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소쇄원의 공간 요소는 김인후의 ‘소쇄원 48영’의 시문에서 대부분 발견된다. 비가시적 차원이란 개념으로 표상하기가 불가능한 세계 비선형적 감성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추상적인 개념을 해체하고 실제(the real)적인 것으로 되돌아 간 삶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엄기홍, 2007). 인간의 신체적 행위 즉, 의미가 담긴 체험과 공간이 연결될 때 비로소 공간과 인간과의 작용은 단지 가시적인 명료한 상(像)의 차원이 아닌 비가시적 의미에서의 만남을 합친 상호작용의 장소가 된다. ‘소쇄원 48영’에서 표현된 이 같은 체험은 주변 자연환경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시사하고, 유연한 구성으로 인해 소쇄원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과 함께 단계별 조화를 보여준다.

‘소쇄원 48영’에 나타난 시각적 체험(지각적 경험, 신체(몸)의 체험(감각적 경험) 등 다양한 공감각성은 오감체험의 창발

현상으로 심화된다.

V. 복잡성 이론으로 본 소쇄원 해석

본 연구는 현 시대의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전일적이고 상호 주관적인 영향 하에 작용하는 시스템 이론으로서 복잡성 이론에서 도출된 공간적 특성을 토대로 소쇄원의 특성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복잡성 이론에서 도출한 공간적 특성은 ‘주변 상황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열린 시스템’, ‘전체와 부분간의 피드백으로 새로운 질서 출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쇄원의 경관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물리적 차원의 공간과 열린 시스템

물리적 차원의 공간사태에서는 소쇄원의 경물 요소들을 주변 상황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열린 시스템으로 보았으며, 세부적인 특성으로 ‘사건(상황)’, ‘비결정성’, ‘부분과 전체의 상동적 관계’를 들 수 있다(표 6). 물리적 차원으로서의 공간의 사례들을 소쇄원의 전체 구조와 상동적 관계로 보는 것은 마치 부분이 전체와 같은 프랙탈(Fractal)구조와 유사하며, 소쇄원의 경관 특성이 가시적인 경물의 공간구성과 비가시적인 소쇄원 48영의 시문으로 상호관계가 생성되고 있는 구조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공간적으로 비유해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쇄원의 구성요소들은 자연을 차단하지 않고 서로 상이한 것들의 조화로 하나를 이루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의미를 지닌다.

2. 비가시적 차원으로서의 경험과 열린 시스템

비가시적 차원의 경험에서는 소쇄원 48영을 의미적 방법으로 다루었으며, 자연과 인간간의 피드백으로 새로운 질서 출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세부적 기법으로 ‘사건(상황)’, ‘행위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를 들 수 있다(표 7). 공간을 시각 위주로 접근하면 보는 주체가 중요해지고 보여지는 만물은 피동적 객체가 되지만 신체(몸)의 감응(感應)¹²⁾ 관계에

표 5. 비가시적 차원으로서의 관계생성

비가시성	소쇄원 48영
신체(몸)체험: 감각적 경험	자연과 합일화 된 행위의 모습, 공감각적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 특히 계류를 중심으로 한 수공간 주변에서 벌어졌던 사교행위, 시음 행위와 연주행위 등 “바람 불어 시원하고”(제1영), “낙시대를 드리운”(제6영), “더위를 식히니”(제11영), “매화 대헤서의 달맞이”(제12영), “정좌하니 계곡바람이 씻고 쓸어주는”(제19영), “거문고 땡기기”(제20영), “잔을 돌리며”(제21영), “바둑을 두며”(제22영), “계단 위로 오르며 소요하니”(제23영), “줄음 중에 문득 놀라 깨어 일어나니”(제24영), “못에서 몸을 씻다”(제25영), “농어회와 함께 즐기 못하니”(제41영)
시각적 체험: 지각적 경험	“책과 두루마기 축이 깨끗”(제2영), “시냇물 흘러 돌마다 부딪치며 내려오니”(제3영), “매대와 광풍각이 영주를 능가”(제4영), “좁은 길 연이어”(제5영), “물고기, 가재, 벌레 한가지로 쉬어”(제7영), “숲과 못은 절로 아름답기가 으뜸인데”(제9영), “푸른 하늘 달을 보니”(제13영), “물결을 보거니”(제14영), “살구나무 그늘에 굽이쳐 흐르는 냇물”(제15영), “이끼가 푸릇푸릇”(제18영), “그늘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제38영), “골짜기에 비치는 단풍”(제44영), “흰 눈이 날렸으니”(제45영)

표 6. 물리적 차원으로서의 공간과 열린 시스템

분류	공간사례	개념의 구현 내용	창발성		자기조직화	
			도입기법	특성	도입기법	특성
물리적 차원으로서의 공간	제월당과 광풍각	서로 이질적인 대립으로 제어한다는 느낌보다 각각 처지를 지키며 전체와 상호작용	자연지세의 흐름을 연속	사건(상황)	주변상황과의 소통	부분과 전체의 상동적 관계
	광풍각의 안과 밖	시간흐름에 따라 자연 변화를 인지하는 공간구성	내부공간에 자연의 관입	비결정성	자연, 일상의 변화와 교류	부분과 전체의 상동적 관계
	소계곡과 화계	자연과 인간이 융합되는 경계를 보여주는 장소인 동시에 대조를 이룸	자연현상과의 유기적 변이	비결정성	지형을 이용	부분과 전체의 상동적 관계
	인공물길과 자연물길	구축적 요소의 물리적 조작을 통해 경계가 소실되면서 자연과의 연속성 추구	외부에서 정원 내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경관	사건(상황)	자연과의 연속성 추구	부분과 전체의 상동적 관계
	담장과 단	내·외부 열린진 개방형태	공간의 혼합	사건(상황)	내·외부 경계소멸	부분과 전체의 상동적 관계
	투족위교와 약작	직류와 곡류에 적합한 다리 형태로 서로 대조를 통해 조화	구축의 연속성	비결정성	주변상황과의 소통	부분과 전체의 상동적 관계
	화계와 화오	계단과 둔덕에 화목이 심어졌으며, 상하를 수직으로 통합	구축의 연속성	비결정성	지형을 이용	부분과 전체의 상동적 관계

표 7. 비가시적 차원으로서의 경험과 열린 시스템

분류	사례	개념의 구현 내용	창발성		자기조직화	
			도입기법	특성	도입기법	특성
신체(몸) 체험: 감각적 경험	“바람 불어 시원하고” (제1영)	난간에 기대어 불어오는 바람에 시원함을 느끼는 체험은 몸의 감각적 체험, 도가적 자연관 상징	오감을 자극하고 자연과 교감	사건(상황)	자연경관과 일상의 변화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낚시대를 드리운” (제6영)	낚시를 즐기는 행위이기도 하며, 은일적 풍류를 상징	유기적 공간	사건(상황)	능동적 적응주체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더위를 식히니” (제11영)	연못에서 더위를 씻는 즐거움의 행위	유기적 공간	사건(상황)	자연경관과 일상의 변화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매화 대에서의 달맞이” (제12영)	매화와 달을 즐기는 풍류를 상징, 군자의 고결한 삶, 신선경을 상징	시간에 따른 과정 강조	사건(상황)	자연경관과 일상의 변화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정좌하니 계곡바람이 씻고 쓸어주는” (제19영)	“오래 정좌하니” “바람이 씻고 쓸어주는 구나” 경관체험의 즐거움을 표현, 소유주의 풍류미학	시간성의 공간개입	사건(상황)	맥락적 확장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거문고 튕기기” (제20영)	군자의 공간의 필수 요소, 가무를 즐기기 위한 악기연주, 풍류미학	예술적 경험장소	사건(상황)	능동적 적응주체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잔을 돌리며” (제21영)	흐르는 물에 잔을 돌리며, 음주행위와 경관의 체험, 자유로움의 추구	유기적 공간	사건(상황)	자연과 다양한 일상을 담음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바둑을 두며” (제22영)	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는 즐거움의 체험, 자연교감, 자연회귀, 신선사상	창조적 점유와 사용	사건(상황)	능동적 적응주체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계단 위로 오르며 소요하니” (제23영)	“계단을 따라 산보 하며 소요유” 경관에 대한 신체의 체험, 유유자적하는 자유의 경지	창조적 점유와 사용	사건(상황)	맥락적 확장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졸음 중에 문득 놀라 깨어 일어나니” (제24영)	“밀려오는 졸음 중에 놀라 깨어 일어나니” 잠 풍류, 물아일체	예술적 경험장소	사건(상황)	맥락적 확장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조답에 몸을 씻다” (제25영)	조답은 오곡류와 폭포 사이에 있는 물이 고인 곳으로 산수를 거쳐 삼아 생활하는 풍류를 상징	유기적 공간	사건(상황)	자연과 다양한 일상을 담음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농어회를 즐기 못하니” (제41영)	순채씩을 농어회에 비유, 미각적 체험으로 오감을 통해 자연과 일체	유기적 공간	사건(상황)	자연과 다양한 일상을 담음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

서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관계는 공생적 상호 감응관계(김성우, 2004)를 말하는 것이다.

소쇄원 48영의 시적 텍스트는 소쇄원 해석에 중요한 모티브로서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관계를 지칭하며, 물리적 영

역의 고정된 범주가 아닌 내·외부 사이의 소통을 생성하기 위한 매개체가 된다. 이것은 자체의 목적보다 하나의 수단으로서, 삶과 일치될 때 그들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48영의 시적 텍스트는 자연을 사건(상황)들의 상호관계적 구조로 보고, 그 ‘과정’과 ‘관계망’의 총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잡성이란 인간의 환경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충족될 때 적절한 형태로서 나타난다.

3. 자기조직화를 통한 감성언어와 체험

자기조직화의 의미는 앞에서 제시했듯이 능동적 적응주체로서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관련없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쇄원에서 자기조직화를 통한 감성언어와 체험의 행위자는 당시의 시적 정취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행위자의 능동적 개입으로서 체험이란 시각적 체험(지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신체(몸)의 체험(감각적 경험)을 뜻한다. 감각적 경험이란 몸의 시각을 위시한 다양한 시각성을 의미한다. 현장 속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은 특정 시점, 특정 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서 있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매순간 순간의 상황으로서의 공간체험(성종상, 2006)이다. 따라서 ‘소쇄원 48영’은 장소와의 상호 관계성을 통해 소쇄원 전체 공간을 음미하기에 심상적으로 충분한 컨텍스트(context)를 제공한다. 즉, 시문들은 복잡하지만 일정한 질서를 보이는 자유로운 발생에 기초한다. 또한 인간의 상상력을 환경과의 끊임없이 촉발시켜 주는 소쇄원은 행위자와 자연환경과의 상호성으로 인해 연출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공간체험에 있어서의 감성언어란 인간의 감성적 관계를 자극하며, 또 다른 시적 상상력을 이끌어 내어, 나아가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게 만든다. 이렇듯 시는 공간 작업의 든든한 배후이며, 공간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텍스트로서 공간의 가시적 영역 밖의 공감각적 체험을 가능케 한다. 이는 상호관입에 의한 비결정성으로 주체와 대상,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소멸되는 전일성(全一性)의 통합감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행위자의 감성언어로서의 체험은 행위자의 경험과 환경간의 상호성을 의미하며, 단위의 성질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비결정성의 성질이므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주변 자연과 단위공간과의 관계형성에 따라서 영역의 용도가 변하여 개방적인 유동성을 지닌다. 따라서 일정한 규정성으로 존재하지만 그 규정성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잠재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쇄원의 물질적 차원의 경물과 ‘소쇄원 48영’의 비가시적 차원의 경험은 다양한 의미의 공간을 생성시키는 자기조직화의 동인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행위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정비된 뿌리-코스모스 대신 결뿌리-카오스모스처럼 다량체의 접속으로 상호텍스트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VI.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현대과학의 모태인 근대과학의 자연법칙은 확실성(certainty)을 지향하면서 자연현상을 단순히 분석적이고 결정론적 법칙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기계장치로 환원하여 탐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함축되는 근대 문명의 세계관은 자연간의 조화나 인간간의 또는 인간과 자연간의 연결대신, 이를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감성과 상관없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합리주의 또는 객관성이라는 명분으로 근대를 지배하는 원리와 태도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성주의는 사람의 이성을 절대화하고 세계와 자연을 대상화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세기에 들어 나타난 일련의 과학혁명에 의해 이와 같은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과학이론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론의 관점에서 물질적 차원과 정신, 생명 과정을 재개념화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부분들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전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주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했듯이, 현대 과학이론인 복잡성을 토대로 소쇄원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소쇄원이 자연과 인간의 내재적 상호관계성을 파악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아울러 서구 과학의 논점을 동양적 가치에서 찾으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쇄원의 경관 특성을 1. 물리적 차원으로서의 공간, 2. 비가시적 차원으로서의 관계생성 등으로 텍스트화 한 후 복잡성의 특성을 통해 이를 복잡한 구성요소로 만들고, 이들의 경계영역 물리적인 경물과 자연적 요소, 비가시적인 행위 사이의 관계를 흐림으로써 고착화 되지 않고 유연하게 소통하는 열린시스템임을 강조하였다.

소쇄원에서 복잡성을 갖는 물리적 차원으로서의 공간-비가시적 차원으로서의 경험-자기조직화를 통한 감성언어와 체험의 공간을 조직하는 것과 같은 전략은 구성요소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관계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복잡한 특성을 갖는 것은 구성요소들의 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성요소들을 결합시키는 연결구조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한 내적 관계 속에 놓인 경물과 공간 사이에 행위자의 개입과 참여를 유도하여 창발적 공간의 본질이 완성된다. 이것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닌 상황을 유발시키는 공간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복잡성의 이론으로 본 소쇄원의 해석은 세 가지 경향으로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차원의 공간과 열린 시스템에 나타난 복잡성의 특성은 ‘사건(상황)’, ‘비결정성’, ‘부분과 전체의 상동적 관계’ 등 세 가지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기법들은 자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형의 이용이 많은 이

유는 소쇄원의 경우 부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였고, 그 주어진 자연지세의 흐름에 순응하며 조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것은 창발적 상황에 열린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둘째, 비가시적 차원으로서의 경험과 열린 시스템에 나타난 복잡성의 특성은 '사건(상황)',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 감응 관계'가 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기법들은 자연과 일상의 경험이 결합되어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양방향의 어울림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삶의 일시적 행태를 담아내는 창발적 공간이 된다.

셋째, 자기조직화를 통한 감성언어와 체험에서는 구성요소들은 고정적 관계들을 해체하고 유기성을 가진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소쇄원 48영'은 현재의 행위자들에게 소쇄원의 감성적 공간체험의 원천이 되어줄 것이다. 결국 소쇄원에서의 행위자는 동시에 공간의 창출자가 되며, 환경과 상호텍스트된 새로운 공간을 생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쇄원은 인간과 자연,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 사고를 바탕으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와 타자를 결속시켜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쇄원은 다양한 경물들과 시적 텍스트로 이루어진 조형예술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예술적 텍스트로서 바라본다면, 고정된 형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행위자, 관람객들마다 각기 다른 텍스트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사건(상황)의 공간이며, 삶의 장소로서 창발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상 본 연구는 전통공간의 본질인 구성요소들 간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현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석의 시도였으며, 관계형성 도구로서의 '복잡성 이론'을 소쇄원에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를 통해 복잡성에 의한 소쇄원의 현대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최근 새로운 담론으로 현대조경에 시도되고 있는 개념들이 우리 조상의 삶 속에서는 너무 잘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한국전통정원의 실증적 사례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며, 이는 후속 연구로 넘기고자 한다.

주 1) 새로운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복잡성 이론은 미국 산타페 연구소를 주요 거점이 되어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과학 연구의 한 흐름이며, 현재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디자인 일반 등 거의 여러 분야에 걸친 학제간의 융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 2) 전일론적 시스템은 개체 안의 내제된 성질이 아닌,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본질로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 3) 카프라(Fritiof Capra)의 생태학적 인식은 모든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가 자연의 순화과정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말한다. 카프라의 이 같은 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의 의미를 과학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이론과 실천, 자연과 문명, 개인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제안이다(Fritiof Capra, 1998).

주 4) 이런 전환이 근대적 인식과 가치 전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전환은 '대체'가 아니라 절합적 '재배치'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합리적 사고와 분석을 직관적 사고와 종합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관적·종합적 사고의 큰 연결망 위에서 합리적·분석적 사고를 적재적소에 결합해 재배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심광현, 2005).

주 5) 통합된 관점은 시스템의 개개의 요소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뜻하며, 뭉뚱그려진 총체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차이들의 연결망이 어우러진 전체성이라 할 수 있다(Mark C. Taylor, 2001).

주 6) 복잡성 이론은 현대과학 이론이지만 관계형성 도구로서의 공간과 체험자의 의미를 중시하는 이론이기에 소쇄원의 경관 특성을 설명해 주는 적절한 이론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 7) 흔히 '복잡하다'고 하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스러운 상태를 연상하는데, 이는 complex가 아니라 복잡한 complicated에 해당하는 의미이다. Complex의 어원인 라틴어의 complexus는 '엮는다'는 그리스어 pleko에 '함께'라는 뜻의 접두사 com이 붙어 생긴 합성어로서, 구성요소가 함께 엮임으로써 외관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일정 질서 있는 상황을 두고 '복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윤영수, 채승병, 2005).

주 8) 근대과학의 개체중심의 환원론에 대한 근거로 "전체는 부분들의 합"이라는 정의와 대조를 이룬다.

주 9) 카프라(Fritiof Capra)는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의 합치점을 양자 모두가 사물의 전일성과 상호연관성을 깨달아 고립된 개별자의 관점을 초극해 궁극적 실재와 합일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양사상은 명상적 체험을 통해 각성을 얻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동양사상에서 체험은 언어적 이해가 아니라 그 속에 뛰어들어 직접 느끼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심광현, 2005).

주 10) 이것은 개개의 기법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같은 기법이 만들어 낸 과정이 중요하며, 그 속에서 자연의 섭리에 귀 기울이고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선조들의 겸허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성종상, 2000).

주 11) 감성적 시각에 대해 비평가할 포스터(Hal Foster)는 그가 편집한 <시각과 시각성>(vision and visually)에서 두 용어를 변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각(vision)이란 '보다'라는 'I see'를 의미하는 말로 개인이 자기 바깥의 세계와 관계 맺게 해 주는 생리적인 시각의 통로로만 생각하기 쉬운 반면, 시각성(visuality)은 신체기관으로서의 눈이 수행하는 시지각 이상의 것으로서,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내용들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성은 몸 주체의 부각이고, 이용자의 신체(몸)가 직접 공간에 참여하는 행위로 옮겨짐을 뜻한다(장일영, 김진선, 2006). 따라서 신체(몸)의 체험(감각적 경험)은 다양한 공감각의 체험인 시각성의 개념을 말한다.

주 12) 감응이란 주객체 분리적 사고가 아니라 주객체 통합적이고, 우열적 가치 구분적 사고가 아니라 상호교감적 사고를 요구한다(김성우, 2004).

인용문헌

1. 강성남(2009). 복잡계 이론으로 정책과 효과 간의 인과관계 푼다.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2. 강영조(2001). 소쇄원 48영에 보는 경관체험과 평가의 원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9(35): 62-74.
3. 김성호(2003).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서울: 시공문화사. p.166.
4. 김봉렬(2006).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2. 서울: 돌베개. p.65.
5. 김성우, 이승용(2003). 場이론에 입각한 건축에서의 장의 이해와 건축장의 가능성. 대한건축학회지. 19(5): 11-18.
6. 김성우(2004). 시각과 감응: 동서양 건축에서의 경험의 문제. 건축역사연구. 13(4): 45.
7. 김주미(2000). 복잡계로서의 건축개념과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2(3): 123-131.
8. 김주미(2001). 비선형 패러다임과 디지털 건축. 대한건축학회. 45(9): 10-16.
9. 권영길(2001). 공간디자인 16강. 서울: 도서출판 국제. p.126.
10. 박영욱(2009). 필로아키텍처. 서울: 향연. p.145.
11. 박정욱(2001). 풍경을 담은 그릇 정원. 서해문집. pp.61-72.

12. 심광현(1999). 문화생태학 구성을 위한 시론: 근대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패러다임을 위하여. 서울: 원도시건축아카데미.
13. 심광현(2005). 프랙탈. 서울: 현실문화연구. p.318.
14. 신상섭(2007). 한국의 전통마을과 문화경관 찾기. 지역: 도서출판 대가. p.49.
15. 서자유(2007). 틈 개념에 의한 한국전통정원의 해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성종상(2000). LOCUS 조경과 비평 2: 다시현실의 틈에서. 서울: 조경문화. p.99.
17. 성종상(2006). 조경 미학 디자인: 고산 윤선도 원림의 생태미학. 서울: 도서출판 조경. p.229.
18. 이인식(2008). 지식의 대응합. 서울: 고즈윈. p.244.
19.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57-134.
20. 임석재(1999).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서울: 대원사. p.313.
21. 엄기홍(2007). 부정적 시각성의 문제. 예술학. 4(1): 35.
22. 유명희(2005). 자기조직화 이론과 현대건축공간구성의 상관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 윤영수, 채승병(2005).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55.
24. 장일영, 김진선(2006). 현대조경설계에 있어서 시각 개념의 전개 양상-가시성에서 확장된 시각성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4(4): 7-8.
25. 조현일(2009). 1000. 서울: 접힘/펼침. p.36.
26. 천득엽(1999). 한국의 명원 소재원. 서울: 도서출판 발언. p.99.
27. 최창현, 박찬홍(2007). 복잡계와 동양사상. 서울: 지샘. pp.143-144.
28. Fritiof Capra(1998). 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생물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과학의 이해. 서울: 범양출판사.
29. Mark C. Taylor(2001). The moment of complex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48.

원고접수: 2010년 4월 23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6월 25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